



파업속보

- 전면 파업 116일차 -

**이행!! 성실교섭
쟁취!! 단체협약
승리!! 파업투쟁**

제15호2006.6.21급

〈발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기평지부 T)02-6009-8310 F)02-6009-8019 E)itep@jinbo.net

‘집중교섭기간 설정’했으나 한차례 교섭 후 종료

- 지난 5/26 교섭대표가 합의했으나 5/30 교섭에서 파기
- 파업 116일, 그동안 원장은 말로만 협상

원장의 집중교섭파기는 우리노조에게 원장에 대한 한가닥 신뢰마저 무너뜨렸으며, **집중교섭기간 동안 원장집 앞 일인시위와 원장 퇴진 구호** 등을 자제하고 있는 노조의 성의있는 노력을 외면했다.

파업 108일째를 맞은 지난 5/26 노사간의 단체협상이 대전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십수 차례의 교섭이 원장이 원하는 서울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과기노조의 본부가 있는 대전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었다. 낙장부리던 원장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협상 당일 양측의 교섭대표가 참석하여 3시간 가까이 되는 교섭을 진행하였고 **2006년 5월 26일부터 2006년 6월 2일까지 집중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섭 후 원장과 교섭위원들을 위해 과기노조 위원장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다. 원만한 교섭을 바라는 노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었다.

그러나 5/30(화) 기술센터 21층 용궁에서 다시 열린 교섭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확인서명하지 않는 원장으로 인해 **집중교섭기간 설정은 파기**되었다. 이유는

- ▶ **지난 회의록에 교섭대표 서명불가**
- ▶ **잠정합의조항 교섭대표 확인서명 불가**
- ▶ **노측의 시위/집회 자제 문구 삽입**

등을 주장하며 원장은 교섭을 결렬시켰다.

교섭대표가 서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의 참여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결국 과기노조와의 교섭은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편임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잠정합의된 64개 조항에 대해 합의하고 미 타결된 조항만을 집중적으로 교섭하자는 노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때문에 원장은 거부하였다. 이를 후, 실무교섭에서는 ‘**잠정합의**’ 조항을 ‘**잠정협의**’였다고 용어를 바꾸어 표현해 그간의 교섭내용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진] 과거 단체 협상을 준비하는 모습. 집중 교섭 기간은 노사간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었으나 5/30 교섭에서 파기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원장은 교섭기간 중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 ▶ **기관에 영향을 주는 행위 중단**
- ▶ **원장개인에 대한 퇴진구호 중단**
- ▶ **원장집 앞 시위 중단 등 파업행위 자**

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원장은 원만한 교섭을 위해 노조에 어떤 모양을 보여주었는가?

▶ **노조사무실 철거 요구**

▶ **내선전화와 인터넷 중단**

▶ **같은 층 복사기 철거** 등. 심지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같은 층 민원용 인터넷과 복사기마저 철수시키는 악랄한 원장의 행위에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집중교섭기간 설정에 대해서 환영했고 기대하였으나 파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지속적인 교섭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노사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노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수많은 조항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앞으로의 교섭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원장의 진정성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란 말이 있다. 5/26일 대전 회의에서 과기노조 위원장이 원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으나 5/30일 서울 용궁에서의 교섭에서 저녁 식사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식사제의도 하지 않는 몰인정함을 보였다. 끝까지 대립해 보자는 냉랭함을 반영하는 듯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6/25, KBS TV 시사투나잇

파업 108일째인 석·박사 노조원들

지난 5월 25일 목요일 KBS TV 시사투나잇에서 파업 108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을 취재하였고 당일 방송하였다. 주요한 관점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석·박사 노조원들이 파업 108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 조명하는 것에 있었다.

방송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노측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을 번갈아 가며 취재하고 방송하였다. 방송 내용은 KBS 홈페이지와 산기평지부 블로그(<http://itep.egloos.com>)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사진] KBS 시사투나잇에 보도된 ‘파업 108일째인 석·박사 노조원들’의 방송 모습

방송 말미에 진행 아나운서가 언급한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평소에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또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도 이러한 원칙과 소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입을 빌려 나온 투명성, 효율성, 건전한 조직문화, 원칙과 소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사진] KBS 시사투나잇에 보도된 ‘파업 108일째인 석·박사 노조원들’의 방송 모습